"하루하루의 삶을 화두 삼으세요"

☞ 19면에서 계속

는 거죽을 믿지 말고 너 자신부터 알면 나의 속도 알 수 있다고요. 생활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뜰앞의 잣나무'라 한 뜻은

문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니라."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예전에는 그렇게 물으면 '할!'하기도 하고 '부처가 어떻습니까?'하면 주장자로다 골통을 치고 또는 '부처님 법은 어떤 겁니까?'하면 손가락 하나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방편상 내리신 말들인데 그것이 전부 생사를 갈라내는,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함이 없는 말씀을 모두 해 놓으셨거든요. 똥둑간에 가다가 부처가 무어냐고 물으면 '똥 친 막대기다'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뭐 말할 수 없이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왜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였을까? 한마디 이르지 않는다고 죽였을까?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나 또 조주가 왜 머리 위에다 신발을 얹어 가지고 나갔을까 이런 등등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그건 정말 부처 아닌 부처가 돼서, 그 마음이 일체 보살이 돼서 허공에 꽉 찰 겁니다, 아마. 그런데 왜 잣나무만 부처겠습니까? 전체 어느 거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그네들의 스승이고 모두가 서로 서로의 스승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몰라서 차원이 낮으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모습이,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죠.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 군데 다가 몰입을 해서 거기 놓아라.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모든 거를 감사하게 놓고 또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부 놔라. 일거수일투족 다 놔라."이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을 켜면 초는 닳습니다. 녹습니다. 그 녹는다는 그것이 바로 업 덩어리인 이 몸체 속에 들은 모든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또는 세균성,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몸으로 태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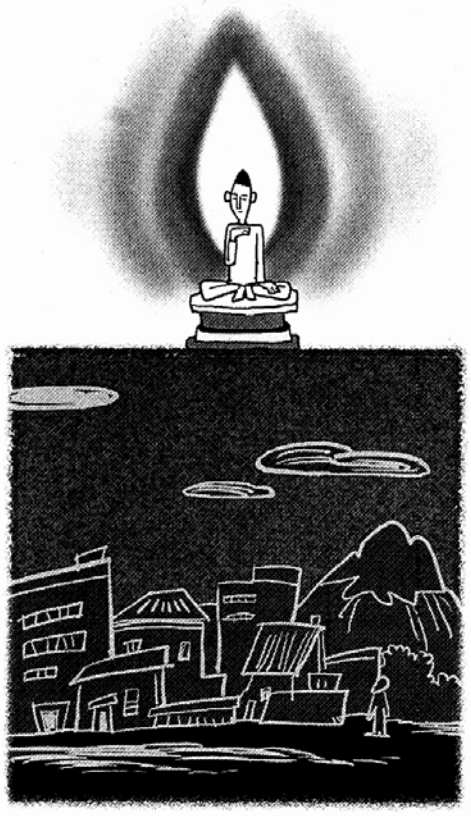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그렇게 놓지 않으면 녹지를 않아요. 이건 절대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베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을 때는 진짜 마음의 불을 켜서 내 몸과 같은 초가 다 녹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죠? 불도 없고 초도 없죠? 그 도리를 알면 바로 깨우친 겁니다. 초도 없고 불도 없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두 난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그대로 그 공이 화두니라.'한 겁니다. 내 육신 나온 것이 화두이자 공이고 공이자 화두니까, 지금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심도 현재심으로 돌아오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고정됨이 없이 공하였으니, 공에서 나오는 것을 화두로 삼고 그대로 공에다 일임해서 맡겨 놔라.'고 한 겁니다. 일일이 그것을 말기다 보면 진실로 내 참나를 발견하고 찾는 데에 아주 지름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단이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 군데 다가 몰입을 해서 거기 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이라는 것은 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내가 하는 거, 악을 썼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하는 것도, 내가 불자로서 이렇게 악을 쓰고 화를 내서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화나는 것도 욕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한 겁니다. 돌아가는 전체가 마음의 주인이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나오지 않고 자기 나오기 이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마음의 주인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하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즉 실상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깐 어디에 불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붙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놔 버린다면, 그러면서 그대로 여여하게 생활을 하면서 돌아간다면 화두니 공안이니 하는 것이 따로이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나의 실상을 말한 것임을 안다면 그대로 간단하게, 누구 말마따나 펄럭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지기 때문이지,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라면 미륵불이라고 따로 부를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젊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늙을 거와 전자에 젊었던 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내가 늙어서 아무개, 젊었을 때 아무개하고 따로 따로 이름을 불러야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공식하고 있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공체로써 공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나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못했으면 '미륵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몸을 벗고서 또 다시 나올 때, 만약 여기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탄생을 해서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이 미륵불입니다.

그런데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지기 때문이지,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라면 미륵불이라고 따로 부를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젊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늙을 거와 전자에 젊었던 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내가 늙어서 아무개, 젊었을 때 아무개하고 따로 따로 이름을 불러야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공식하고 있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공체로써 공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나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거고, 부처님이 정말 가르친 뜻은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여한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따지는 건 여러분이 따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온다 뭐 어쩐다 하는 것도 그건 그분의 생각이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다 할지라도 역력하게 모레는 모레고 글피는 글피입니다. 내년은 내년이고 후년은 후년이에요. 그런 것도 여여하게 그대로 쓰되, 자기가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에 착을 두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깨우쳐 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본다면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인데 인간사는 데는 질서라든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건 이렇게 해서 안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되고…, 이런 상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되 그거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송장이 합니까, 내 육신이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집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인으로써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들이 지금 우리 몸 속에 세포 하나 하나에 전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한데 합친, 공생 공심이 한데 합쳐서 공용을 하고 공체로써 전부 자기 분야를 맡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몸뚱이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있기 때문에 나라는 큰 체(體)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생명들이 분야를 맡아 가지고 한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이룹니까? 너무 공장이 많은데. 한두 군데를 맡아줘야, 여러 군데를 다 맡아줘야 세계적으로도 돌아가는 겁니다. 국내에도 국방부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다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은 학생, 또는 국민이면 국민, 경제는 경제 기획원 같은 데를 다 맡아줘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바로 우리 체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속에도 공장이 많습니다. 심장에서 잘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까? 심장에서 잘해서 대장이 사는 것도 아니고 대장이 잘해서 소장이 사는 것도 아니고, 소장이 잘해서 이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콩팥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간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아니 되기 때문에 다 조목조목이 분야를 맡아서 소임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진리가 바로 천차만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오온의 뜻이, 우리가 삼각원형을 이룬다 이런 게 있는 것이, 삼세심이 일심으로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겁니다.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니까 오온 속에 칠보가 가득 차 있느니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만 원 천 원 백 원 할 때, 만 원이 진리라면 그 만 원 속에 전부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 원을 쓰려면 백 원을 쓰고 천 원을 쓰려면 천 원을 쓰고 이천 원을 쓰려면 이천 원, 만 원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참나를 홀연히 깨달으면 스스로 지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과거불 · 현재불 · 미래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바로 삼세제불

예수 재림후 미륵불 오는지…

문 친구 중에 타종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미륵불이 이후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대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오로지 진리를 추구하는 것뿐이지 무슨 앞으로 미륵불이 나타난다느니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미륵불이라는 게,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미륵불이라면 말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 차차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미륵불이 오신다' '미륵불이 나오신다' 이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깨달으면 미륵불이 지금 현재의 불(佛)과 미래의 불(佛)과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미륵불입니다. 앞으로 깨달으면 '불'이고 지금 현재에 깨닫지 못했으면 '미륵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몸을 벗고서 또 다시 나올 때, 만약 여기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탄생을 해서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이 미륵불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분좋은 여행, 펄스투어

예약 및 문의 : 02-3446-0410

불교유적 성지순례

정통 미얀마, 태국 불교성지순례 8일 : 210만원



일 정 : 인천-방콕-양곤(1)-파간(1)-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1)-양곤(1)-방콕(1)-아유타야-방콕(1)-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특급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미얀마 비자발급비(35,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신비의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불교성지순례 8일 : 160만원



일 정 : 인천-자카르타(1)-족자카르타(3박,보로부두르,프람바난)-발리(2)-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디럭스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중국여행

북경, 용경협(백화동)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북경(3박 천안문,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명13릉,천단공원,용경협)
특전 : 특급호텔(4성급) 이용,용경협,백화동,만리장성 케이블카,북경오리구이 서커스관람,태가촌석식(민속쇼관람),현지공항세,기사&가이드팁

서안, 아방궁 4일 39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서안(3박 아방궁,진시황릉,병마용갱,화청지,비림,성벽관광,박물관)
특전 : 일급호텔(건국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

상해, 항주, 소주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상해(홍구공원,임시정부청사,예원,외탄)-항주(1박 서호,영은사,육화탑) 소주(1박 발마사지,졸정원,한산사,호구사탑,실크공장)-상해(1박)
특전 : 일급호텔(4성급) 이용,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발마사지

일본여행

벳부온천 3일 54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벳부(2박 온천욕,아소산,원숭이쇼,지옥온천순례,유노하나전망대)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

운젠, 하우스텐보스 3일 549,000원 (목,토요일출발)
일정 : 운젠(1박 운젠지옥,무사마을,화산공원)-사세보(1박 하우스텐보스)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하우스텐보스 1일 자유이용권

www.pearlstour.com

성지순례 / 할인항공권 / 맞춤여행 / 패키지 / 신혼여행 / 배낭여행 / 골프투어 / 국내여행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영동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446-0410 / 팩스 : 02-3446-0414

펄스투어